“젊은 스님 위한 전통의식이 포교”

광주영산재 전승관 건립 나선 월인 스님



“부처님 밥을 먹으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젊은 스님들에게 역대 조사스님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의식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의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영산재를 이끌며 영산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월인 스님(광주전통불교영산회 회장, 법륜사 주지 · 사진)이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스님은 현재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에 2000여 평의 대지를 구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승관을 건립하고 있다.

벽진동 일대는 인근에 군사시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도심지역 개발이 유력한 곳 중 하나다. 현재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월 1회의 교육활동과 특별교육, 하계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승관이 없어 사찰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인 스님은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 신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 전통의식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스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우리 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2009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 7월 ‘광주영산재’를 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바라분야 월인 스님 · 범음분야 혜령 스님 · 범패분야 호산 스님이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즈넉한 山寺서 새기는 금연 다짐

고창 선운사,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
6~7월, 두 차례 걸쳐 지역주민 대상으로



선운사 금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지역주민이 금연상담사와 1대1 개별상담을 하며 맞춤형 금연지도를 받고 있다.

금연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 선운사가 무료 금연 템플스테이를 열어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지난달 10~11일에 이어 7월 1~2일에도 경내서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각각 20여 명이 참가했다.

금연 템플스테이는 원광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센터로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선운사와 함께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하려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역 금연율을 높이는 동시에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면티와 메모지, 펜, 가글액, 은단, 물티슈, 금연파이프, 아로마 금연스틱, 허브캔디 등 금연보조용품을 지급받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금연의지를 다졌다. 이후 한아름 원광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의 금연특강이 이어졌다.

한 교수는 “금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본인의 의지이다”며 “식사 후에 담배 생각이 나면 껌을 씹거나 녹차를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연을 시작하는 것보다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박2일간 맞춤형 금연상담
참선 · 명상 등 불교프로그램도
수료 후 금연클리닉 연계해
6개월간 금연보조제 등 지원

고등학교 졸업 후 30여 년간 흡연해온 박모 씨(48세)는 “매일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해왔는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권유로 금연을 결심했다. 쉽진 않겠지만 꼭 금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세루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전북금연지원센터 소속 상담사들과 1대1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개인별 하루 평균 흡연량과 운동여부, 건강 상태와 음주량 등을 체크하는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각자 참가자 성향에 맞는 금연 보조제를 처방하는 등 맞춤형 금연지도가 이어졌다. 또한 예불, 참선, 명상 등 불교관련 프로그램과 소감문 형식의 편지쓰기를 통해 금연성공을 다짐했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은 “이번 금연 템플스테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연을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고즈넉한 산사에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높이는 것이 이번 템플스테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캠프 템플스테이 수료 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를 연계해 6개월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한다. 수료 후 2주 이내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야 하며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이 제공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인스님들 공부에 보탬 되길”

구구장학회, 송광사에 장학금 500만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도를 닦기 위해 전념하는 학인스님들을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봉은사 신도들로 구성된 구구장학회(회장 이은주)는 7월 4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찾아 장학금 300만원과 강원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위〉 4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은 학인스님 3명의 장학금과 강원 운영에 사용된다.

구구장학회는 지난 2010년 봉은사 신도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현재 4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1회 군부대 지원, 선방 대중공양, 직지사 수계식 공양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날 제1회 구구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하반기에는 청암사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주 회장은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을 평소 느꼈다. 젊은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불교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승가대 학장 연각 스님은 “신도들의 십시일반 기금의 의미를 살려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며, 불자들의 마음을 알아 훌륭한 스님들을 배출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 우화정, 전통한옥 정자로 재탄생

목조양식으로 6월 30일 준공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羽化亭)이 전통한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6월 30일 주지 도완 스님, 내장사 포교국장 덕연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우천규 정읍시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장산 명물인 우화정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콘크리트 양식에서 전통한옥의 멋스러움이 돋보이는 목조 팔각지붕 형태로 새롭게 태어난 우화정은 호수 가운데 자연석 석축 위에 화강석 기단을 갖춘 24.44㎡ 규모로 시도비와 내장사 자부담 4억5000만원 예산으로 준공됐다.

통로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한 징검다리로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우화정을 감싸고 있는 호수, 내장산의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는 평이다.

우화정은 지난 1965년 건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안전이 우려되는데다 그동안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화정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전각이 우화정.

이에 따라 내장사와 정읍시는 기존 우화정을 철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의 자연경관에 걸맞은 전통한옥으로 개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설계를 시작해 9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우화정이 갖는 전설을 기억해야 한다” 며 “우화정이 내장산과 내장사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오랜 세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우화정이 철거돼 아쉽지만 새롭게 건립된 전통한옥 우화정이 국립공원 내장산의 랜드마크이자 전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우화정은 내장사 입구 호수에 자리하고 있어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출사 명소로 이름났다. 특히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풍광은 ‘산홍(山紅), 수홍(水紅), 인홍(人紅)’으로 대변되는 내장산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절경으로 꼽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협, 여름용품 후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승천, 일광사 주지)가 재소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용품을 후원했다.

승천 스님을 비롯한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혜인정사 진송 스님 등 불교 교정위원들은 6월 30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부채 2,000개와 생수 6,000병을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수용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여름용품을 준비했다”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자아반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참회를 하며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주교도소 직원들에게 “수용자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교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름용품 전달식에는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조항덕 사회복귀과장,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 락 처
010-5904-2406
031-429-1077
불교조각연구원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